

#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백년의 기록]밀레니엄 시대 ‘식물자원화’ 새 도약기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백년을 끝내며

입력 : 2005. 01.03. 00:00:00

역사는 과거에 발전한 과정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주도 식물연구사 1백년을 보면 크게 일제시대의 식민·수탈기, 광복이후의 준비기 그리고 성장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05년 이치카와(市河三喜)의 식물채집으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제주식물 연구는 이후 제주 자연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식물연구 발전에 상대적으로 크게 공헌한 효과도 가져오게 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제주식물 발전의 준비기였다. 제주도내 분포하는 식물상을 밝히고자 하는 분류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제주도내 식물자원의 현황을 정리하는데 국내외 많은 학자의 연구가 진행된 시기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는 제주도내 대학에 식물학과의 신설, 식물관련 연구소의 설립 등이 이루어지면서 식물연구의 성장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는 식물의 분류학적 측면의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생태적, 생리적, 자원개발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연구 성과물을 생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식물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는 자원적 가치의 재조명과 함께 제주도 특이성을 갖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개발 등 가치창출 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제주식물연구 1백년이 지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 21세기는 우리의 식물연구에 대한 노력결과에 따라 도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제주도 식물 종 다양성, 종의 지역적 특이성 등 제주 식물이 지닌 무궁한 잠재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동시에 식물상의 재정립, 생태적·생리적 연구의 다양화, 자원화 등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인력의 양성 및 질적 향상 등에 대한 많은 해결과제가 주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적 특이성을 이용한 응용적 측면의 연구노력에 따라 제주식물자원의 다양

한 개발과 활용이 과제로 부각돼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적인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새로운 제주식물 세계화 1백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과 집중 여부에 따라 제주의 신성장동력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난 1백년 외국에 자원을 송두리째 넘겨준 전철을 다시 밟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식물 종 다양성 보전, 지속개발 가능한 고유의 자연생태계의 유지 등 21세기 제주 식물연구의 해결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해 '백년의 기록'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백년'을 주제로 34회에 걸쳐 집중 연재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 **식물, 왜 100주년인가**

### **1905년 처음 전파... 수탈목적 짚어**

### **해방후 부종휴 등 제주가치 재발견**

제주의 자연유산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의 세가지 보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식물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이 올해로 1백주년이 된다.

제주식물에 대해 근대적 의미의 연구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동경제국대학에 재학중이던 약관 20세의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1886~1970)와 미국의 동물학자 앤더슨 일행은 1905년 8월 9일 제주에 도착한 뒤 9월 27일까지 40여일간 제주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동·식물을 채집했는데, 이때 제주식물이 외부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가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치카와 일행의 제주체류 기간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한국에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하던 해였다. 굴욕적인 을사조약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으로부터 원치않는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본인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는 제주도의 부원(富源)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의 지리, 교통, 어업, 농업, 임업, 기후, 풍토 등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를 출판한다. 이 시기도 1905년으로, 강점국 시각에서 저술한 이 책에는 매우 굴욕적이고 치욕적

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치카와 일행이 제주를 다녀간 한 해 뒤인 1906년에는 서흥리 성당 프랑스 신부 타케(한국 명 엄택기)가 제주의 식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타케신부는 수 만점의 표본을 제작하여 유럽의 대학이나 박물관 등에 보냈다.

1913년에 일본인 나카이는 제주도에서 약 1개월간의 식물조사와 타케신부가 채집한 식물표본을 감정한 후, 1914년 제주도의 식물상을 정리하여 1,433 분류군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지역의 식물상을 정리한 것이었지만 훗날 부종휴 등에 대해 많은 오류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1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윌슨(Wilson)이 구상나무를 신종으로 발표하였고, 그 후 모리(森 爲三, 1928), 코이즈미(小泉, 1932) 등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발표도 잇따랐다. 해방 후 4·3과 1950년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식물의 연구는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후 제주도의 식물에 대한 연구는 제주 출신의 부종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종휴는 제주도의 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많은 미기록 식물들의 자생지를 확인하는 등 제주도의 식물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부종휴는 제주출신으로는 매우 드물게 광복을 전후해 한라산과 식물, 동굴, 고고학에 심취해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주의 가치와 자원들을 발굴해냈다. 부종휴는 제주인으로 제주생태계 1백년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로 회자된다.

1957년 이덕봉에 의해 나카이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를 종합하고 나카이 보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제주도의 식물상을 재정리하였다.

이후 제주도의 식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연구의 폭도 매우 넓게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식물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에는 일본과 유럽 등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해방후에는 국내 학자들과 제주출신의 연구진들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